

# FBI 압수수색에 허 찢린 트럼프, 출마선언 앞당기나

### 정치권, 11월선거 영향 촉각 속 공방 공화 "전례없는 일" 법무장관 사퇴 요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미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이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며 사법 체계를 무기로 활용하는 검찰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한 뒤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간절하게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출마 선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이 촉각 사이에서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 보도했다.

가뜰이나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 1·6

의회폭동 진상조사특위의 청문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부각되며 공화당 내 강고했던 입지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자 더는 출마 선언을 미루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인 셈이다.

공화당 역시 압수수색을 맹비난하며 트럼프 연호에 나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권력 탈환을 목표로 한 공화당으로선 자칫 선거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FBI의 조치가 정치적 의도를 지닌 부당한 행위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FBI를 관찰하는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정치를 무기화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중간선거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면 이번 압수수색을 조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엘리스 스티파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과 행정부가 정적을 상대로 법무부를 무기화한 데 대한 즉각적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같은 당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갈런드 장관의 사퇴나 탄핵을 압박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고 중간선거를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조차도 "미 역사상 어느 전직 대통령도 자택이 급습당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의혹이 있는 만큼 FBI 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면서 FBI를 연호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NBC방송에 나와 "우리는 법치를 믿는다"며 "심지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에 도착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전날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저택을 압수수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압수수색에 대해 사법 체계를 무기로 활용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뉴욕시 로이터=연합뉴스

## 국고 텅빈 스리랑카, 전기요금 최대 264% 인상

### 국영 전력회사 누적 적자 8천억원 달해...곳곳신 시위

국가부도 상황에 빠지면서 국고가 텅 빈 스리랑카 정부가 전기요금을 최대 264% 인상했다.

10일(현지시간) 이코노미넥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공공사업위원회(PUCSL)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영전력회사 실론전기위원회(CEB)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평균 전기요금은 75%가량 인상됐다.

특히 한 달 전기사용량이 30kWh 미만인 가구의 경우 264%가 오른 최대 198

스리랑카루피(약 718원)를 내야 한다. 30~60kWh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는 211% 인상된 599(약 2천170원) 스리랑카루피의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스리랑카 정부가 전기요율을 올린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CEB의 누적 적자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경유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꾸준히 오른 탓에 CEB의 적자는 6억1천600만달러(약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

지난 5월 18일부터는 공식적인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어 가운데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중에 지난달 9일 수도 콜롬보 등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동과 관저로 난입하고 총리 관저도 불태웠다.

이 과정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군기지를 거쳐 싱가포르로 도피한

후 사임했다.

이후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며 당국은 치안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반정부 운동가 2명을 체포했고 의회는 비상사태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콜롬보 등 곳곳에서는 시위대 체포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종교 지도자·노동조합 등이 이끈 시위대가 콜롬보 시내를 행진하며 구속자 석방과 비상사태 해제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닷새째 불타는 쿠바 연료탱크...전력난 극심

쿠바 연료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가 커지면서 쿠바의 극심한 전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쿠바데바테와 그란마 등 관영 언론 등에 따르면 수도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마탄사스 해안의 연료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까지 연료탱크 4개가 불에 탔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화재 닷새째인 이날 "화재 발생 지역을 통제했다"고 밝혔지만, 불길은 완전히 잡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네 번째 연료 탱크를 휘감았던 불길은 잦아들었으며, 현장을 뒤덮었던 두터운 검은 연기도 열어졌다고 목격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밤 벵락과 함께 시작했다.

8개의 연료 탱크 중 하나에 벵락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몇 차례의 폭발, 기름 유출과 함께 다른 탱크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지금까지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으며, 12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9명이 아직 입원 중이다.

이번 화재는 가뜰이나 심각한 쿠바의 경제난에 전력난, 연료난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쿠바 전력당국은 전날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발전 시설 한 곳이 화재로 인한 급수 차질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서울 물난리' 외신 보도에 등장한 'banjiha'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서울 도심 심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를 비유 있게 전하면서 구조상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 형태에 주목했다.

외신들은 이날 일제히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8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인명 피해 상황을 크게 보도했다.

이 가운데 반지하를 영어로 'semi-ba

sement' (준 지하실, 절반 지하층) 또는 'underground apartment' (지하의 아파트)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긴 'banjiha'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폭우에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사망했다면서, 서울의 반지하 거주민 중에는 빈곤층이 많다는 과거 기사를 소개했다. 당시 기사에서

NYT는 반지하 주거 형태가 영화 '기생충'의 배경으로 활용됐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반지하 주택을 기생충의 배경으로 소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BBC방송도 서울 남부에서 폭우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하면서 "그간 서울에서 홍수에 피해를 봤던 '반지하'로 알려진 '절반 지하층'에 대한 우려가 커진 터였다"라고 지적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폭우 피

해를 상세히 전하고 반지하 주택에 대해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수상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된 비좁은 지하층"이라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2012년 가수 싸이의 히트곡인 '강남 스타일'에 등장하는 부촌 강남구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남에서 근무한다는 한 시민은 침수된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면서 AFP통신에 "강남은 경제의 중심이고 개발이 잘된 곳이라는데 자연재해에 이렇게 취약하다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알프스 빙하 녹자 유골·비행기 잔해 드러나

스위스의 알프스 빙하가 폭염으로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반세기 넘게 묻혔던 유골과 비행기 잔해 등이 잇달아 발견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스위스 남부 발레주(州)에 있는 헤센 빙하에서 사람 유골이 발견돼 수습됐다.

프랑스인 등반객 2명이 10년 전쯤 발

길이 끊긴 옛 등반로 인근에서 발견된 이 유골의 주인은 1970, 80년대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일주일 전에는 체르마트 인근의 슈토키 빙하에서도 거의 온전한 형태의 사람 유골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된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DNA 분석을 각각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텝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드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충격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충격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충격 | L&S프레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네비스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롤 |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 온열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충격기능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